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의 사례 분석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들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정보 기술(IT)과 결합된 에너지 관리 플랫폼, 분산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및 효율화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타트업 사례

- 1. 식스티헤르츠(Sixteenthouz):**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발전소(VPP)** 기술을 보유한 소셜벤처입니다.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 (태양광, 풍력 등)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2. 에이치에너지 (H-Energy):**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을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3. 데스틴 파워 (Destin Power):** **에너지 저장장치 (ESS)** 및 **전력변환장치(PCS)**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1위, 전 세계 3위 PCS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 4. 에너닷 (Enerdot):** 재생에너지 IT 솔루션 기업으로, 가상 발전소(VPP)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소규모 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시너지 (Synergy)**: 고객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플랫폼 회사로, 수요 관리 (DR) 사업을 주력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전기를 절약하면 이를 전력 자원으로 만들어 전력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식의 에너지 셰어링 모델을 운영합니다.
6. **씨오투네트워크 (CO2Network)**: 개인이 직접 관심 분야의 탄소 상쇄권을 구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해외 혁신 스타트업 사례

1. **옥토퍼스에너지 (Octopus Energy, 영국)**: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을 원하는 고객과 발전소를 구축한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디지털 양방향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모든 전력은 라벨링되어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엑소와트 (Exowatt, 미국)**: 샘 올트먼 등 글로벌 리더들의 투자를 받은 태양광 발전 스타트업입니다. 렌즈를 이용한 혁신적인 태양광 집광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Next Kraftwerke (독일)**: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 발전소(VPP)를 구축 및 운영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 (태양광, 풍력 등)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Powerledger (호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 전력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태양광 발전기 소유자와 일반 소비자가 잉여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셰어링을 구현합니다.

5. **Vandebron (네덜란드):** 독립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할 에너지를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했는지 선택할 수 있어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6. **Sonnen Batterie (독일):** '소넨 커뮤니티'라는 P2P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ESS를 보유한 가정들이 남는 전력을 서로 공유하고 거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 **The Zero Fund:**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크레딧 플랫폼 및 기후 금융 기술 스타트업으로, 최근 투자를

하며 운영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